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배포일시	2018. 12. 28.(금) / 총 6매(본문 3)	
		담당자	• 과장 손덕환, 사무관 김규한, 주무관 이훈석 • ☎ (044) 201-3671, 3672	
보도일시		2018년 12월 3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경북·충북 거점 10년 청사진 그린다…지역개발계획 승인 신경주 역세권·오송 화장품단지 등 41건 사업 선정…2조 6,976억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 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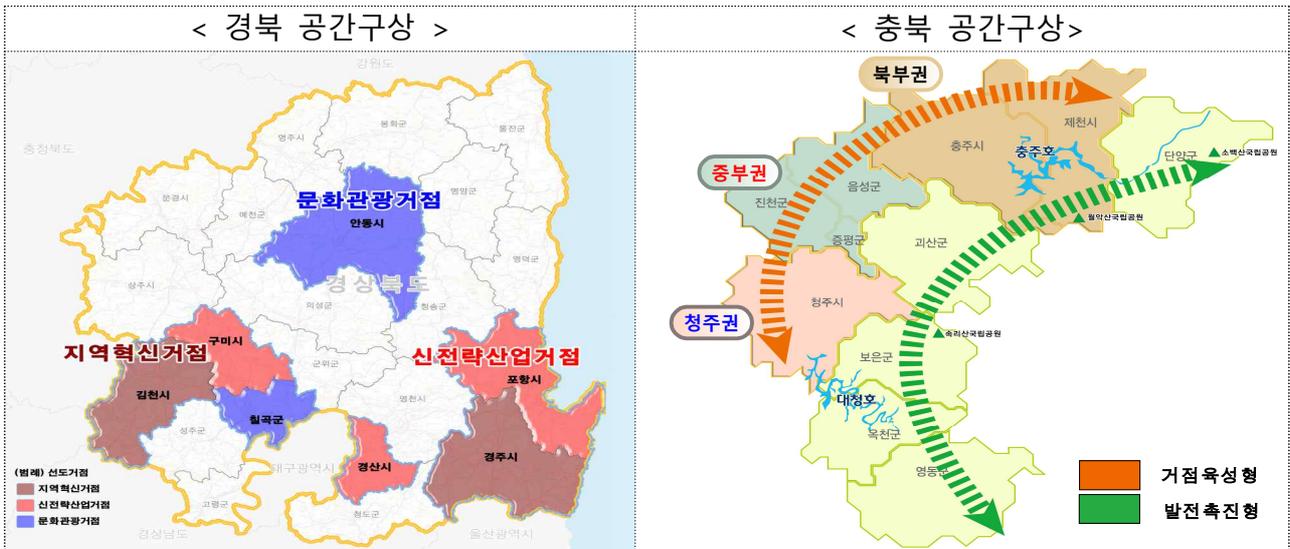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별로 낙후지역(발전촉진형)과 거점 지역(거점육성형)에 대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 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기존 18건, 신규 23건)의 사업이 반영되었고, 총 2조 6,976억 원*(기존 9,677억 원, 신규 1조 7,2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총 투자 규모 2조 6,976억 원 중 민간투자가 1조 4,539억 원(53.9%), 국비가 5,350억 원(19.8%), 지방비가 7,087억 원(26.3%)

□ 이번 계획의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경 북)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 ★ 27건, 1조 7,380억 원

- 신경주,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 아울러,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화를 위한 환동해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고도화 등 산업의 재편을 통해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는 등 활력도시, 젊은 도시를 추구할 계획이다.
- 또한, 가야문화권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제공하고, 가야산성 등 문화유적지를 정비·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충 북)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 ★ 14건, 9,596억 원

- 오송 화장품단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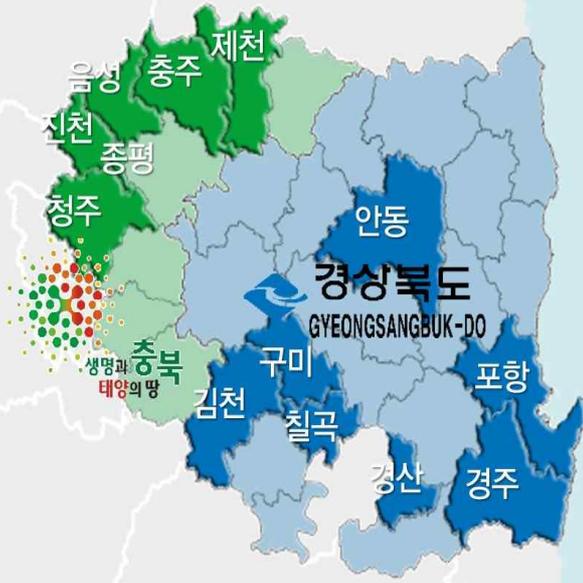
- 아울러, 미래유망산업(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또한, 충주호 주변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경북·충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 “사업실행 단계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충청북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김규한 사무관(☎ 044-201-3671) 또는 이훈석 주무관 (☎ 044-201-36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2개 도 지역개발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

**새로운 번영의 땅,
뉴-허브(New Hub) 지대 구축**

- 전략1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 전략2 : 지역거점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 전략3 : 지역 특화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육성



**미래성장과 주민행복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

- 전략1 : 환경 보전·고용·교육·정주환경의 개선
- 전략2 :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 전략3 :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
- 전략4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

1. 경상북도

□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9~2028)

○ (대상지역) 거점지역 7개 시·군 및 종전 사업지역 2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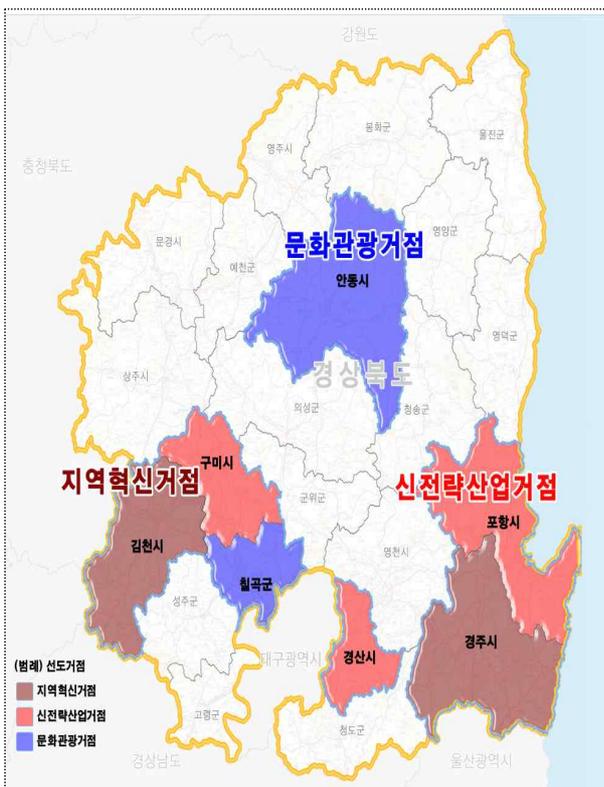
- * (거점지역)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경산시, 칠곡군
- * (종전 사업지역) 성주·고령군

○ (비 전) “미래성장파 주민행복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

- * (추진전략) ① 환경보전·고용·교육·정주환경의 개선, ②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③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

○ (투자규모) 27건(기존11/신규16), 1조 7,380억원(국비 4,052/지방비 5,614/민간 7,714)

○ (공간계획 구상)



□ 지역혁신거점(경주, 김천)

- (핵심키) 역세권 개발로 복합신도시 조성
- 새로운 생산기반 조성,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전략거점화 추진

□ 신전략산업거점(포항, 구미, 경산)

- (핵심키) 환동해 경제기반구축, 산업시설 고도화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문화관광거점(안동, 칠곡)

- (핵심키) 관광자원 정비로 관광경북 실현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으로 관광산업의 다변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발전 도모

2. 충청북도

□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9~2028)

○ (대상지역) 거점지역 6개 시·군 및 종전 사업지역 1개 군

* (거점지역) 청주·충주·제천시, 증평·진천·음성군

* (종전 사업지역) 단양군

○ (비전) “새로운 번영의 땅, 뉴-허브(New Hub) 지대 구축”

* (추진전략) ① 新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② 지역거점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③ 지역 특화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 (투자규모) 14건(기존7/신규7), 9,596억원(국비 1,298/지방비 1,473/민간 6,825)

○ (공간계획 구상)

